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0. Vol. 15, No. 1, 161 - 175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장 원 덕

안 귀 여 륙[†]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그리고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성취동기 및 내재적 직업가치의 수준에 따라 진로성숙수준 및 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벽 수준에 따라서도 진로성숙도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 중에서 진로성숙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은 맥락변인인 진로장벽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은 성취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귀여루, (446-7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읍 산 6-2,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Tel: 031) 280-3484, E-mail: agyr7@kangnam.ac.kr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이다. 개인이 결정하는 진로는 곧 그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남홍, 2001; 전경숙, 정태연, 2009).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구체적인 진로선택이 이루어지는 성년기의 전단계로서 바람직한 진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들의 진로 성숙도나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는 것은 이들의 진로 지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진로 교육은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육 프로그램 속에 지구상에는 다양한 일과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실제 직업종사자들까지 만나 체험을 쌓는 현실적 탐색단계에 이르게 되고 이때는 이미 탄탄한 직업관을 형성하게 된다(김충기, 200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중고등학생 1,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가 ‘학업문제’를 45.7%가 ‘진로 문제’로 고민한다고 답해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학업문제역시 진로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문제와 관련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진로 지도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하영목, 2005; 이승연, 2007).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자신이 선택한 학과의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나 학과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뒤늦게 진로를 변경해 전과를 하거나 대학교를 다니는 동시에 입시공부를 해서 다른 학교로 재입학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한국의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입시, 시험공부와 관련된 측면만을 중점으로 하고 학생의 발달상황이나 진로탐색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런 상황을 낳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로발달 이론은 진로 문제가 일회적인 선택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적 발달과정의 문제라는 시각으로 주목을 받았다. 즉 진로발달이란 어려서부터 꿈을 갖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청소년기에 능력을 개발하여 진로를 선택하며, 그 이후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만족하고 성취하며 지위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는 것이다(김지혜, 2006).

학생들의 진로발달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진로성숙도를 들 수 있다. 진로성숙도는 개인마다 서로 다르며, 학습경험 등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장석민, 임두순, 송병민, 1991). 그러나 학생들의 진로 발달의 정도를 보는데 있어서 태도변인만으로는 진로발달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즉 태도는 성숙했다 하더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진로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봉환(1997)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인지나 태도 측면 뿐 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의 체득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 혹은 면접에 대비한 사전 훈련 등에 관한 실제적인 진로준비 및 실천행

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진로에 대해 의식이나 태도가 성숙되어 있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준비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았다.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척도가 개발되면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권용호, 2002; 장기명, 1998). 또한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의 장면에서도 진로 성숙도나 진로정체감 등의 인지나 태도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진로에 관련된 준비행동 및 실행을 향상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남진, 2003; 윤주영, 200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을 가늠할 수 있는 진로 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 중 먼저 성취동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취동기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곤란한 일을 해결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 또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업을 훌륭히 성취하고 싶어 하며 성취결과보다 성취과정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내적 의욕(Murray, 1938)이고, 또한 도전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기능(윤운성, 1987)이라고도 정의되므로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신의 진로와 관계된 진로 성숙도와 준비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는 수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그 연구들의 대부분은 성취동기에 대한 정의

를 발달시키고 세분화 시키는 것과 전 생애적 관점에서 성취동기가 인간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Atkinson(1978)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간에는 과제의 선택, 기대수준, 과제수행, 피드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성취동기는 다른 심리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학습되고 육성되며(박용현, 1982), 단시간의 훈련으로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성취동기의 발달 요인이나 예언 변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중 몇몇 연구들이 성취동기와 진로발달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성취동기에 따른 진로 성숙 수준을 살펴 본 한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과 성취동기의 수준에 따라 진로성숙도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김은영, 199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취동기와 진로발달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성취동기가 진로결정과 진로성숙, 그리고 취업여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재창, 유계식, 1996; 이병인, 1991).

한편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심리적 변인인 일에 대한 가치(work value) 혹은 직업가치관은 일반적으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나뉜다(Ginsberg, 1951). 내재적 가치는 일 그 자체를 통해 성취감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인 반면, 외재적 가치는 일을 소득과 같은 외재적 보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일에 대한 태도는 직업선택 요인에 대한 인식으로 알아볼 수 있다. 외재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직업 선택 시 수입이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재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발전성, 장래성, 명성, 명예,

보람, 자아성취, 적성, 흥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장홍근외, 2006). 직업선택 요인을 통해 본 직업가치관이 우리 사회에서 지난 30여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면 외재적 가치지향이 내재적 가치지향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아직 직업 활동 그 자체보다는 직업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그러나 장홍근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외재적 직업가치지향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반면 내재적 직업가치지향은 같은 기간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재적 직업가치보다는 내재적 직업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진로성숙도와 진로 준비행동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진로가치 중 내재적 직업가치와 진로성숙도 및 진로 준비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로 선택과 관련이 있는 변인 중 맥락변인이라 볼 수 있는 진로장벽은 진로목표의 성취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자신감 부족, 낮은 동기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교육 기회의 부족, 가난 등과 같은 외적 요인이 진로장벽에 포함된다(Crites, 1969). Swanson과 Daniels (1995)는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CBI-R)에서 직업이나 진로계획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진로장벽을 정의하고, 진로장벽에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진 내적 장벽과 환경에서 주어지는 외적 장벽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손은영(2002)이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내적 장벽은 심리적인 측면의 장애들이며, 외적 장벽은 주로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장벽들이다. 이러한 장벽들은 진로선택, 취업, 직장생활 등의 여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직장생활을 해나가거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관련 목표를 향하여 계획에 따라 여러 경험들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라고 할 수 있다(김은영, 2001).

손은영(2001)은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했고, 요인분석을 통해 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의 특성부족,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미결정 및 직업 준비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 여성 취업의 7요인을 제시하면서, 여자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진로장벽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으며, 내적 통제 경향을 보이는 집단이 외적 통제 경향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진로장벽을 더 적게 지각하고,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장벽을 더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김진숙, 이종희(2003)은 대보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학 장벽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했는데, 자기이해 및 진학정보의 부족, 학업해 및 성적문제, 미래에 지각하두려움과 인한 불안, 학업풍토 및 제도의 문제, 자신감 부족과 부정적인 개념, 주변의 기대와 여건과의 갈등, 외적 지원 부족의 7개의 하위요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진로장벽 연구들은 대학생이나 성인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서 연구결과를 통해 진로발달상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이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고등학생들

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향후 이들의 진로선택과 직업성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학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심리적 변인인 성취동기 및 직업가치, 맥락변인인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지역(분당, 용인, 수원, 동탄) 남녀공학 인문계 고등학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중 남학생은 279명(51.6%), 여학생은 262(48.4%)이었으며 1학년은 237명(43.8%), 2학년은 206명(38.1%), 3학년은 98명(18.1%)이었다. 배부된 설문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4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

성취동기 검사. 성취동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설문지는 McClelland(1966)의 성취동기이론에 입각하여 Likert식 5단계 척도로 6개 하위영역의 47개 문항으로 박기성(1998)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5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채점방식은 47개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체크한 점수들을 모두 합산하는데 도치문항(문항 23번)은 역산하여 합산한다. 총점은 47점에서 235점까지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기성(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전체의 신뢰도는 .70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 α 는 .91이었다.

직업가치 검사. 직업가치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로 외적 가치요인(7문항), 내적 가치요인(16문항), 일반적 가치요인(7문항)의 3가지 영역에서 이기학(1997)이 Rilpatrick의 직업가치척도를 일반적 가치를 제외하고 내재적 가치 영역과 외적 가치 영역 문항 23문항을 변안한 것 중에서 내재적 직업가치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재적 직업가치 척도의 Cronbach α 는 .60이었다.

청소년용 진로장벽 검사.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있어서 진로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a)와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b)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와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하위요인은 7개로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자기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학업태도 및 성적),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7가지 하위 요인 총 4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Likert식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이다.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1~4점 사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진로장벽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요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 α 신뢰도는 .94이었다.

진로성숙도 검사. 진로태도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2003)이 개발한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의 5개의 하위 영역은 자신이 선택하려고 의도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10개의 결정성문항과, 진로선택을 통한 가치추구 및 내재적 욕구와 현실적 타협 정도를 알아보는 8개의 목적성문항,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10개의 확신성문항,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 정보 수집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수준을 알아보는 10개의 준비성문항,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 주체성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9개의 독립성문항으로 총 47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6개의 문항을 역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와 각 하위 차원에 대해 높은 성숙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검사 도구를 개발한 이기학(1997)이 보고한 검사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로 결정성 .88, 목적성 .75, 확신성 .75, 준비성 .76, 독립성 .75였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 α 신뢰도는 .92이었다.

진로준비 행동. 김봉환(1997)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실행하는 정도를 재기 위해 개발한 진로준비 행동 검사를 사

용하였다. 진로준비 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에 포함되는 실질적인 예로는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이고진로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정보남력을 투자하는 기타의 활동 등이 있다. 검사는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4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김봉환(1997)이 보고한 Cronbach는 .84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9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WINDOWS SPSS 1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의 중앙값(Median)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 다중회귀분석(Stepwise)을 사용하였다.

결과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구에 사용된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표1 참조)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고등학생들의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2참조). 성취동기와 진로태도성숙 수준 간에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r=.456(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에

서도 $r=.238(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직업가치와 진로태도성숙 수준과는 $r=-.192(p<.01)$ 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 수준과는 $r=-.096(p<.05)$ 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성숙 수준간의 상관은 $r=-.690(p<.01)$ 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진로에 대한 태도가 성숙되어 있을수록 진로 장벽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로 장벽은 진로준비행동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541$)

변인	하위변인	평균(M)	표준편차(SD)
성취동기			
	미래지향성	159.20	18.79
	책임감	44.41	5.81
	자신감	20.46	3.04
	모험심	31.03	4.60
	도전의식	21.31	3.53
	과업지향성	19.66	3.54
		22.31	3.34
내재적직업가치		38.38	6.00
진로장벽		85.35	18.58
	자기이해부족	9.34	2.92
	자신감부족	23.40	5.49
	성역할갈등및성차별	13.03	4.21
	중요한타인과의갈등	11.70	3.17
	미래에대한불확실성	8.78	2.50
	진로및직업정보의부족	9.11	2.78
	경제적어려움	9.97	2.91
진로성숙도		161.10	22.62
	결정성	32.11	7.99
	목적성	26.70	6.46
	확신성	32.35	6.33
	준비성	36.36	6.05
	독립성	33.68	5.76
진로준비행동		36.94	8.40

성취동기에 따른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차이

<표3>의 결과를 통해 성취동기 점수가 높은 상위 집단과 낮은 하위 집단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 하 성취동기 집단 간에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 모두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진로태도성숙 5개의 하위변

인 중 4개의 하위변인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변인이 상, 하 성취동기 집단과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목적성 변인도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로 방향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결정하고, 결정한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로를 준비하는데 주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준비행동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541$)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성취동기	1				
내재적직업가치	.224(***)	1			
진로장벽	-.374(***)	.137(***)	1		
진로태도성숙	.456(***)	.192(***)	-.690(***)	1	
진로준비행동	.238(***)	.096(*)	-.005	.223(***)	1

** $p<.001$, * $p<.05$

표 3. 성취동기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변인의 독립표본 t검정 ($N=541$)

종속변인	하위변인	구분(성취동기)	N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성숙도	상 집단	272	169.92	23.215	9.897***	
	하 집단	269	152.19	18.098		
결정성	상 집단	272	34.12	8.047	6.107***	
	하 집단	269	30.06	7.404		
목적성	상 집단	272	27.47	7.100	2.772**	
	하 집단	269	25.93	5.666		
확신성	상 집단	272	34.90	6.365	10.304***	
	하 집단	269	29.77	5.145		
준비성	상 집단	272	38.52	5.518	8.927***	
	하 집단	269	34.17	5.796		
독립성	상 집단	272	34.89	5.765	5.038***	
	하 집단	269	32.45	5.511		
진로준비행동	상 집단	272	38.30	8.642	3.831***	
	하 집단	269	35.57	7.930		

*** $p<.001$, ** $p<.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적 직업가치에 따른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 행동 수준의 차이

<표4>의 결과를 통해 직업가치 점수가 높은 상위 집단과 낮은 하위 집단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 하 직업가치 집단 간에 진로태도성숙이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진로태도성숙 5개의 하위변인인 중 3개의 하위변인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이 상, 하 내적 직업가치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상, 하 직업가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장벽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차이

진로장벽 점수가 높은 상위 집단과 낮은 하위 집단에 따른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 하 진로장벽 집단 간에 진로태도성숙이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5참조). 특히 진로태도성숙 5개의 하위변인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변인이 부적으로 상, 하 진로장벽 집단과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과 상, 하 진로장벽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장벽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진로태

표 4. 직업가치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변인의 독립표본 t검정 ($N=541$)

종속변인	하위변인	구분 (내적직업가치)	N	평균	표준편차	t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상 집단	299	158.18	21.8	3.379**
		하 집단	242	164.72	23.06	
	목적성	상 집단	299	31.03	7.85	3.539***
		하 집단	242	33.45	7.97	
	확신성	상 집단	299	24.63	6.28	8.860***
		하 집단	242	29.27	5.73	
	준비성	상 집단	299	31.96	6.41	1.594
		하 집단	242	32.83	6.19	
	독립성	상 집단	299	37.17	5.93	3.515***
		하 집단	242	35.35	6.06	
진로준비행동		상 집단	299	33.37	5.94	1.395
		하 집단	242	34.06	5.52	
		상 집단	299	36.46	8.81	1.484
		하 집단	242	37.54	7.84	

*** $p<.001$, ** $p<.01$

도성숙 수준이 낮았다. 진로장벽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혼란을 경험하는 정도가 크고, 사회적인 봉사 및 자아개발 보다는 현실적인 욕구를 더 중요시하며,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을 하는 정도가 높고, 진로선택과정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진로선택 능력에 자신감이 부족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위 사람의 의견 및 평가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변인 들의 상대적 영향력

마지막으로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진

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6참조). 1단계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의 변량 중 49.2%를 설명해주었다. 2단계에서는 진로장벽과 성취동기가 투입되었는데 1단계보다 12.7%가 증가되어 진로태도성숙을 61.9%로 설명해준다. 3단계에서 내재적 직업가치가 추가되면서 2단계보다 0.9% 증가되어 진로성숙도를 62.8%로 설명해준다.

진로준비행동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은 성취동기 변인이었다. 첫 번째로 성취동기는 16.2% 진로 준비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내재적 직업가치가 결합되면서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량은 24.4%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장벽까지 투입되었을 때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량은 26.8%였다.

표 5. 진로장벽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변인의 독립표본 t검정 ($N=541$)

종속변인	하위변인	구분(진로장벽)	N	평균	표준편차	t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상 집단	282	148.46	14.94	-16.686***
		하 집단	259	174.87	21.51	
	목적성	상 집단	282	28.64	6.27	-11.814***
		하 집단	259	35.89	7.95	
	확신성	상 집단	282	24.34	5.71	-9.589***
		하 집단	259	29.29	6.26	
	준비성	상 집단	282	29.32	4.70	-13.404***
		하 집단	259	35.65	6.22	
	독립성	상 집단	282	34.91	5.56	-6.000***
		하 집단	259	37.94	6.18	
진로준비행동		상 집단	282	31.24	4.94	-11.443***
		하 집단	259	36.33	5.41	
		상 집단	282	36.59	8.08	-1.023
		하 집단	259	37.33	8.72	

*** $p<.001$

논 의

진로(career)라는 용어는 매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청소년에게는 장래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의미하는 말로서, 개인의 성장, 발달, 성숙에 따른 단계별 진학 및 직업 선택 등에 관련된 모든 과정과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로 성숙과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진로 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이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로 방향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결정하고, 결정한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로를 준비하는데 주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 준비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자신의 진

로에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내재적 직업가치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재적 직업가치가 높은 학생은 내적인 욕구에 의해 진로를 선택하므로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재적 직업가치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모두 진로준비 행동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직업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행동에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학생들이 진로 준비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돋는 환경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진로장벽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 수준이 낮았다. 진로장벽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혼란을 경험하는 정도가

표 6.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과의 중다회귀분석(stepwise)

종속변인	단계	예언변인	R	R ²	R ² 증가량	F
진로태도성숙	1	진로장벽	.702	.492		260.990***
	2	진로장벽 성취동기	.787	.619	.127	174.081***
	3	내재적 직업가치 성취동기	.793	.628	.009	128.806***
진로준비행동	1	성취동기	.403	.162		52.043***
	2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493	.244	.082	57.627***
	3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	.512	.262	.018	47.593***

*** $p < .001$

크고, 사회적인 봉사 및 자아개발 보다는 현실적인 욕구를 더 중요시하며,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을 하는 정도가 높고, 진로선택과정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진로선택 능력에 자신감이 부족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위 사람의 의견 및 평가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사용된 세 가지 변인,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 장벽이 진로 성숙도와 진로 준비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취동기(미래지향성, 자신감, 책임감, 모험심, 도전의식, 과업지향성), 직업가치(내재적 직업가치, 외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자기이해부족, 자신감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에서 진로성숙도 수준을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은 진로장벽이었다. 진로 장벽이 진로성숙도의 변량 중 49.2%를 설명해주었다. 한편 진로준비행동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은 성취동기 변인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 대상으로 심리적 변인인 성취동기와 직업가치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고등학생의 진로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그동안 대학생과 여성에 편중되어 연구되어온 맥락변인인 진로장벽이 진로상담 영역에서 고등학생도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진로선택과 진

로를 준비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로장벽의 대상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대학입시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고등학생에게 본 연구를 통해서 진로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진학상담 못지않게 보다 많은 진로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의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의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이 결과를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시대상과 지역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적 변인, 심리적 변인, 맥락적 변인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명하지 못한 다른 여러 가지 변인들을 고려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방법적인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들을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인과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방법은 모두 자기보고의 질문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자기보고식 측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적분석에서 설문지의 방법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과 편리함은 있으나 보다 다양한 방법의 자료수집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용호(2002). 실업계 고교생의 심리적 독립 및 학업성
취도에 따른 진로 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진(2003).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재활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남홍(2001).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김은영(1998). 성 역할 정체감 및 성취동기가 진로성숙
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은영(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2006). 고등학생의 성 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취동기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이종희(2003).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학 장
벽. 상담학연구, 4(4), 773-788.
- 김진숙, 이종희(2005).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 한국
학술정보.
- 박용현(1982). 성취동기 육성의 교수방안. 서울: 교육출
판사.
- 손은영(2001a).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
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영(2002a).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 ·
심리적 변인의 관계. 상담 및 치료. 한국심리학
회지.
- 손은영(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인 변
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 손은영(2003). 대학생의 생물학적성과 성 역할 정체감의
일치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
리치료, 127-136.
- 이병인(1991). 가정환경, 성 역할 정체감, 성취동기와 직
업포부수준과의 관계.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승연(2007). 청소년 자살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지
식과 오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97-117
- 이재창, 유계식(1996). 성취동기, 성 역할 정체감, 진로
결정 유형간의 관련분석과 이 변인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논총(홍익대학교), 13,
114-145.
- 윤운성(1987). 창의성 및 지가향성과 학업성취와의 관
계.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주영(2000). 진로결정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
동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
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기명(1998).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 진로결정수준 ·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 진로성숙도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장홍근 외(2006).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 전경숙, 정태연(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33-153.
- 조지혜(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2005a).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
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상담학
연구, 6(4), 88-92.

- 황대향, 이아라, 박은혜(2005b).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비교. *한국청
소년연구*, 16(2), 125-159.
- Atkinson, J. W., Britch, D.(1978). *Introduction to
motivation*, New York: Von Nostrand Co.
- Critis, J. O.(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Ginsberg, E.(1951). *Occupational Choice: A Approach
to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cClelland, D. C.(1965). Toward a theory of motive
acquisition, *American Psychologist*, 29, 5.
- Murray, H. A.(1938). *Exploration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wanson, H.
L., & Daniels, K. K.(1995).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to self esteem,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원고접수일: 2010년 3월 2일

제재결정일: 2010년 3월 17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0. Vol. 15, No. 1, 161 - 175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es, internal work value, and career barrier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ang Wonduck Gwi-Yeo-Roo Ahn
Kangnam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hievement motive and work value, career barrier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600 students from 5 different high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subjects' career attitude maturity level between the following upper and lower level groups: achievement motive, work value and career barrier. Further,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tween participants of upper and lower achievement motive group.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was a the career barrier and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the achievement motive. The discussion addresse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and for clinical practice.

Keywords: achievement motives, internal work value, career barrier,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